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및 관련요인

홍 연 란¹ · 도 은 영²

순천대학교 간호학과¹,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²

= Abstract =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er-income Class

Yeon-Ran Hong¹ · Eun-Young Do²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¹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²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depression boys and girls from lower-income class in 2 metropolitan cities.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urvey for this study were 316 children & adolescents from lower-income class in Gwangju and Taegu.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Dec, 2012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Three instruments were used in the study: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of Kovacs & Beck, Rosenberg Self-Esteem Scale (1965), and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of Pavot & Diener (199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0.0 programme.

Results: Among the subjects, 91.8% were in non-depressive group, 8.2% were in depressive group. As a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ve influences for depression were shown in the order of importance as follows; satisfaction with the life, self-esteem, satisfaction on school life & existence of par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reduce depression of boys and girls from lower-income class, and develop the strategies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elf-esteem, & satisfaction on school life with supporting in place of their parents.

Key Words: depression, self-esteem, satisfaction, incom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전세계의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번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감기에 비유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한다. 우울은 침울함과 공허함, 슬픔과 근심 등 가라앉은 감정상태를

※ 이 논문은 2014년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조성비로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도은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65번지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62-950-3722, 팩스번호: 061-953-2218

E-mail: water1989@naver.com

원고접수: 2014년 6월 10일, 원고심사: 2014년 6월 26일

원고채택: 2014년 7월 8일

의미하는 것이며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상실, 사회적 고립감, 고단함, 울음, 수면, 섭식장애, 자살과 같은 자기파괴적 충동 등의 증상으로 표현된다. 우울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울한 아동은 심리, 사회, 학업 측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기 쉬우며 짜증, 가족이나 친구와의 효율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문제행동, 학업성취저하 등으로 표현된다(Wicks-Nelson & Israel, 2000). 최근 연령과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우울과 자살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울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정서장애로서 사춘기 전후의 민감한 시기에서 경험하는 발달과정상의 신체생리적 변화 및 인지적·사회환경적 변화 등의 많은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Park, 2009).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면 정신건강 상담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43%의 청소년들이 상담의 원인을 우울과 위축 때문이라고 보고(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2012) 하여 우울증상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주된 부적응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여 다양한 신체적 문제와 사회적인 기능장애를 가져온다(Park et al. 2007).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OECD 2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Park et al, 2010)하였고 이는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러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13~15세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적 요인을 탐색한 Sohn (2009)의 연구에서도 약 42%의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이 우려수준임을 밝혀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은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을 우울이 남학생의 우울보다 높다고 보고하며, 청소년기의 우울은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보다는 청소년중기에 극대화 되었다가 성인기로 갈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Sohn, 2009). 또한 부

모관련 변수(Harris, Brown, & Bifulco, 1986), 자아존중감(Jeoung & Choi, 2013),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부모의 관심, 가정의 화목, 스트레스(Choi, & Je, 2008) 등이 우울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삶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우울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은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위험요인의 하나이다(Ha et al, 2003). 우울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적응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빈곤이며(Kovacs et al, 1997), 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반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삶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담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가정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과 차상위가정을 의미한다.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많은 좌절이나 통제 불가능한 생활사건의 경험 등이 우울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을 더 많이 보고하고 부모·아동과 청소년간 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정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Min & Kim, 2007).

우울이 아동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우울로 인해 많은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학업관련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초수급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2)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개 광역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12년 6월 19일 천주의 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목적, 방법,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심의번호 2012-2)을 받은 후,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2개 광역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협조를 구한 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부모와 학생의 서면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기재요령을 설명하여 수집하였다. 대상자수는 관련 선행연구와 G-power 3.1.2 program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측검증일 때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상관관계에서 작은 크기인 .25, 검정력을 .95로 유지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이 완전히 기입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316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연구 도구

1) 우울

청소년 우울은 Kovacs와 Beck (1977)의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를 Cho와 Lee (1990)가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우울척도는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이 Likert 식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1점은 우울하지 않은 정상군, 22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분류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Cho와 Lee (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on (1974)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서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으로 평점 하였다. 5개의 역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Pavot과 Diener (1993)이 개발하고 Hong, Yi와 Park (2000)이 번안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나는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의 문항 5개에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

되도는 Cronbach's $\alpha=.87$, Hong, Yi와 Park (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χ^2 -test를 수행하였고, 일반적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와 Dunnett's T3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우울과 관련된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우울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별 우울 정도의 차이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명목변수를 dummy 처리하여 학년, 부모동거, 학교생활만족, 종교와 함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대상자는 여학생이 54.7%, 6학년이 45.3%를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 26.6%, 6학년이 25.9%를 차지하였고 중학교 2학년이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57.6%로 가장 많았다. 양친의 존재는 양친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편모가족인 경우가 32.3%, 편부가족인 경우가 19.9%, 기타가 6.9%이었다. 학교생활만족정도는 만족한 경우가 48.7%이었고 가족과의 대화는 자주하는 경우가 65.2%이었으며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인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43.7%, 기독교가 38.0%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분류에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우울 점

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7.74$, $p<.001$), 양친존재의 경우 편모가족인 경우가 편부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6.29$, $p<.001$). 학교생활 만족의 경우 불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만족한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았으며($F=12.23$, $p<.001$), 종교의 경우 불교의 경우 카톨릭교의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2.69$, $p=.031$) (Table 1).

2. 우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저소득층 연구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점수는 9.64 ± 6.89 점으로 우울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전체 참여 아동 및 청소년의 91.8%가 8.20 ± 5.06 점으로 정상군으로 분류되었고 8.2%가 25.65 ± 3.31 점으로 우울군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9.38 ± 4.83 점으로 정상군의 경우 평균 29.38 ± 4.83 점으로 나타나 대조군의 평균 25.15 ± 5.51 점보다 높게 나타났고($t=4.80$, $p<.001$), 삶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22.81 ± 6.74 로서 정상군이 우울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27$, $p<.001$) (Table 2).

3. 관련 변인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저소득층 연구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양친존재유무($r=-.073$, $p=.032$), 학교생활만족($r=-.104$, $p<.001$), 자아존중감($r=-.160$, $p<.001$), 삶의 만족도($r=-.274$,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의 만족정도가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대상자의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F값은 19.9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Table 1.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16)

		N	%	Depression M±SD	t or F	p	Schffe or Dunnet T3
Gender	Male	173	54.7	10.53±7.157	2.29	.131	
	Female	143	45.3	8.56±6.419			
Grade	5th	84	26.6	7.62±7.004	7.74	.001	a,c <d,e
	6th	82	25.9	9.56±4.982			
	1st	36	11.4	6.69±5.864			
	2nd	63	19.9	12.00±7.937			
	3rd	51	16.1	12.25±6.954			
School record	High record	40	12.7	10.33±6.557	.23	.790	
	Middle record	182	57.6	9.58±7.098			
	Low record	94	29.7	9.46±6.678			
Parents	Both parents	129	40.8	8.84±7.368	6.29	.001	b<c
	Only father	63	19.9	7.45±4.690			
	Only mother	102	32.3	11.82±6.718			
	Other	22	6.9	11.15±6.523			
Satisfaction on school life	Satisfactory	154	48.7	4.87±4.342	12.23	.001	a<b,c
	Moderate	129	40.8	9.73±5.750			
	Unsatisfactory	33	10.4	10.77±7.714			
Conversation with family	Very often	41	13.0	10.17±6.256	1.31	.27	
	Often	206	65.2	9.70±7.811			
	Rare	69	21.8	9.19±6.856			
Allowance for month	10,000↓	106	33.5	10.17±6.256	.60	.548	
	10,000~20,000	74	23.4	9.70±7.811			
	20,000↑	136	43.0	9.19±6.856			
Religion	Christian	120	38.0	8.74±7.108	2.69	.031	b<c
	Roman catholic	8	2.5	8.63±7.689			
	Buddhist	42	13.3	12.64±6.439			
	Others	8	2.5	11.00±9.243			
	None	138	43.7	9.49±6.472			

Table 2. Self Esteem, & Satisfaction of the Life according to Depression

(N=316)

Classification	M±SD	Group depending on the degree of Depression		t (p)
		General group 290 (91.8%)	Depressive group 26 (8.2%)	
Self esteem	29.38±4.83	29.76±4.59	25.15±5.51	4.801 (<.001)
Satisfaction of the life	22.81±6.74	23.48±6.55	15.31±3.62	6.272 (<.001)
Degree of Depression	9.64±6.89	8.20±5.06	25.65±3.31	-17.215 (<.001)

.001),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beta = -.427, p < .001$), 자아존중감($\beta = -.174, p = .001$), 학교생활만족도($\beta = -.159, p = .002$), 양부모존재유무($\beta = -.139, p = .0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우울을 36.4% 설명하고 있

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조사한 결과 1.03~1.23으로 나타나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 값도 0.81~0.98로 나타나 0.1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우울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N=316)	
		r	p
Grade	5 th	-.039	.098
	6 th		
	1 st		
	2 nd		
	3 rd		
Parents	Both parents	-.073	.032
	Other		
Satisfaction on school life	Satisfactory	-.104	<.001
	Moderate		
	Unsatisfactory		
Religion	Yes	-.237	.392
	No		
Self esteem		-.160	<.001
Satisfaction of the life		-.274	<.001

본 연구대상자인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 점수는 9.64 ± 6.89 점으로 Min과 Kim (2007)의 연구에서 2007년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우울성향이 평균 8.65 ± 4.45 이고 일반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이 평균 7.78 ± 3.74 인 것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발휘할 미래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Hong, 2008). 청소년기 역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로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성장 및 발달하여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로서 학령기와 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고 빈곤이라는 성장과 발달의 위협요소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우울성향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un과 Lee (2006)의 연구에서 우울점수는 27.20 ± 4.55 로서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성향집단의 25.65 ± 3.31 점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한 부모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 한쪽 부모의 부재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Table 4.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 Adolescents from Lower-income Class

		(N=316)				
Variables		B	SE	β	t	p
Model 1	Grade	-.27	.21	-.07	-1.26	.207
	Parents	-1.47	.75	-.10	-1.93	.054
	Satisfaction on school life	-2.47	.57	-.24	-4.33	<.001
	Religion	1.09	.78	.07	1.40	.160
Model 2	Grade	.03	.18	.01	.16	.866
	Parents	-1.91	.66	-.13	-2.89	.004
	Satisfaction on school life	-1.57	.51	-.15	-3.09	.002
	Religion	.58	.67	.04	.86	.386
	Self esteem	-.27	.08	-.17	-3.43	.001
	Satisfaction of the life	-.43	.05	-.42	-8.31	<.001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편모가정의 경우 편부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게 나온 점과 양친의 존재가 우울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점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여학생의 우울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Kim과 Park (2013)의 연구 및 Lin et al (2008)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빈곤이라는 공통요소가 성별이 우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련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보다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Carlson과 Kanshani (1988)의 연구, 청소년 중기까지 우울이 높아진다는 Sohn (2009)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이는 중학교 입학 전의 시기와 중학교 초기의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변화와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절대적·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정서를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없고 학교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고생에서 성적에 높은 집단이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난 Park, Koo, & Jang (200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며 학업성적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없고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를 보였다는 Sohn (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한 Kim과 Park (2013)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은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상당부분 관련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만족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Park과 Kim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양부모의 존재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편부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편모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의 혼인상태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Yoo, Lee & Suh (2004)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과정을 경험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툼이나 생계문제 등으로 진행되는 고통스런 가족해체의 과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우울 경향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울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 양친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변수들로 나타났다. 이중 자아존중감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CDI를 이용하여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강한 역상관관계($r=-0.77, p<.0001$)를 보고한 Orvaschel, Beeferman, & Kabacoff (1997)의 연구와 유사하며 이전시점의 긍정적 자존감이 이후 시점의 긍정적 자존감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통제한 후 이전시점의 우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긍정적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한 Jeoung과 Choi (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가치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 발달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며 본 연구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도 우울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적·사회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좀 더 가치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부터의 보호요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삶의 만족이었으며 이는 Kim과 Cho (1992)의 연구에서 우울의 주요한 요인이 절망이며, 절망은 자신과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우울과 강한 연관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하는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형성하고 장래에 대해 꿈이나 희망을 가지

지 못하고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개입활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 양친의 존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요인의 조절 통제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자체가 예방적 개입을 수행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역기능적 가정환경이나 부정적인 생활사건들 속에서 생활하더라도 우울의 취약성이 발달되지 않도록 저소득가족문제, 한부모가정, 자아존중감 향상, 학업성취 및 대인관계 갈등 관리에 초점을 둔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요약 및 결 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우울 예방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2개 광역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 316명이며 부모의 협조를 구한 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기재요령을 설명하여 수집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9.64 ± 8.86 점으로 우울 정도에 따라 대상자들을 분류한 결과 전체 참여 대상자의 91.8%가 8.20 ± 5.06 점으로 정상군으로 분류되었고 8.2%가 25.65 ± 3.31 점으로 우울군으로 분류되었다. 양친존재,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우울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에 관련되는 주요요

인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양친존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우울 점수의 36.4%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라는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우울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간호학적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역기능적 가정환경이나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 속에서 생활하더라도 우울의 취약성이 발달되지 않도록 저소득가족문제, 한부모 가정, 자아존중감 향상, 학업성취 및 대인관계 갈등 관리에 초점을 둔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eck AT, Rush AJ, Shaw BF, Emery G.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Guilford Press, New York. 1979
- Carlson G, Kashani J. Phenomenology of major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Analysis of thre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8;145:1022-1027
- Cho SC, Lee YS.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0; 29:943-955
- Choi WH, Je MS.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a city. Journal of the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8;12:199-211
- Chun EP, Lee, YH. A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of single parents, Human Life Sciences 2006;9:185-203
- Ha EH, Oh KJ, Song DH. Psychosocial risk ractors for comorbid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3; 22:127-144
- Hankin BL, Mermelstein R, Roesch L.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2007;78:279-295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els A, Hill J.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1990;47:465–473
- Hong YL, Yi GE, Park HS.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life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0;11:333–346
- Hong YR.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of Nursing*, 2008;15:392–400
-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07–130
- Jeoung EJ, Choi HC.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14:1107–1124
- Kim HS, Cho MY.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in patients admitted to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J Korean Acad Nurs* 1992;22:620–635
- Kim BN, Park JH.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response styles, *Korean J. of Child Studies* 2013;34:113–128
-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Youth report, Seoul: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 Kovacs M, Beck AT.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Raven Press, New York, 1977
- Kovacs M, Goldston D, Obrosky S, Bonar LK.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s with IDDM: Rates and risk factors. *Diabetes Care* 1997;20:36–44
- Lin HC, Tang TC, Yen JY, Ko CH, Huang CF, Liu SC, et al.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family, peer and school factors in a population of 9686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008;62:412–420
- Locker J, Cropley M.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standard assessment tests and other important school examination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004;25:333–344
- Min HY, Kim K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7;25:33–41
- Orvaschel H, Beeferman D, Kabacoff R. Depression, self-esteem, sex, and age in a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7;26:285–289
- Park NH, Kim M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in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5;11:436–443
- Park HS, Koo HY, Jang EH.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2007;37:715–723
- Park JI, Park CU, Seo HJ, Youm YS.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0;44:121–154
- Park KW.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depression: focusing in gender differ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9
- Pavot W, Diener E.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1993;5:164–172
- Pine DS, Cohen E, Cohen P, Brook J.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99;156: 133–135
-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Sohn BD.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09;13:481–510
- Yoo AJ, Lee JS, Suh JH. Perceptions of parenting peer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4;25:191–203
- Wicks-Nelson R, Israel AC.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4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2000